

구역:

이름:

<p>6월 24 월요일</p>	<p>이사야 1장-5장 <input type="checkbox"/> (핵심장 5장) <input type="checkbox"/></p>	<p>*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계시라: 이제 이사야서를 읽으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며, 특히 그리스도를 어떻게 밝히 드러내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드라마로 비유하면 대하드라마와 같은 장엄함과 큰 스케일을 가진 책입니다. 이사야는 첫 머리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로다" 라고 예언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만, 이는 당시 복잡한 서남 아시아 일대의 지정학적 사정을 다 반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비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앗수르와 같은 나라들에게까지 미칠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하나님은 1장부터 5장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악을 강하게 비판하고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한편으로는 그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을 함께 말씀하며 희망을 지우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임할 구원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비로소 완전하게 성취됩니다.</p>
<p>문제</p>	<p>"무릇 만군의 여호와와 포도원은 ()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 사람이라"</p>	
<p>6월 25 화요일</p>	<p>이사야 6장-10장 <input type="checkbox"/> (핵심장 9장) <input type="checkbox"/></p>	<p>* 심판 속에 임하는 은혜: 웃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는 하나님을 뵈고 그분께 직접 사명을 받는 환상을 목격합니다. 이사야가 받은 사명은 백성에게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7장에 매우 중요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이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을 선언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고 지으리라는 것입니다. 당시 국제정세는 심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유다 왕국은 강대국 애굽과 앗수르 사이에서 갈팡질팡했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선지자의 권면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불의를 서슴지 않고 행하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앗수르를 비롯한 침략자들은 멸망할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은 생각지 못하는 중에 임할 것입니다.</p>
<p>문제</p>	<p>"그의 이름은 ()라, 모사라, 전능하신 ()이라 영존하시는 ()라, 평강의 ()이라 할 것임이라"</p>	
<p>6월 26 수요일</p>	<p>이사야 11장-15장 <input type="checkbox"/> (핵심장 12장) <input type="checkbox"/></p>	<p>* 구원 노래, 감사 찬송, 심판 선언: 당시 서남아시아 일대의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과 앗수르의 칼이 유다의 목덜미로 향하고 있는 서늘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항구적인 평화를 주리라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남은 백성이 돌아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초강대국의 멸망이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바벨론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할 것이며, 블레셋, 모압 등이 심판을 받아 무너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애초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던 이 민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는데 잠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회복과 심판을 번갈아가며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주이시며 또한 공의의 주이십니다.</p>
<p>문제</p>	<p>"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 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p>	

<p>6 월 27 목요일</p>	<p>이사야 16 장- 20 장 □ (핵심장 20 장) □</p>	<p>* 열방에 드러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저버린 채 지역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앓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앓수르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이며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머지 민족들을 향하여서도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들은 우상을 주로 섬겼으며, 약한 자들을 짓밟고 교만하게 행하는 등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이 차고 넘쳤기 때문입니다. 모압(15-16 장)과 아람(다메섹, 17 장), 구스(18 장), 애굽(19 장)등에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임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라고 칭합니다. 세상 권세는 기세 등등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권세를 압도하시는 세상의 주재이십니다.</p>
<p>문제</p>	<p>“그 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지어다”</p>	
<p>6 월 28 금요일</p>	<p>이사야 21 장-25 장 □ (핵심장 25 장) □</p>	<p>*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시는 주: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됩니다. 바벨론과 두마, 아라비아와 환상의 골짜기, 두로와 시돈 등 당대의 강대국들은 물론 당시 유다 왕궁의 국고와 왕궁을 맡은 신하 셉나에게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임합니다. 바벨론은 군사 강국이며 두로와 시돈은 상인들의 힘으로 번성한 나라였지만, 이런 나라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는 24 장에서 극대화 됩니다. 하나님은 땅을 공허하고 황무하게 하실 것이며, 그 땅에 거하는 이들은 슬픔에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높이며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한편으로는 만민을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심으로 성취됩니다.</p>
<p>문제</p>	<p>“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p>	
<p>6 월 29 토요일</p>	<p>이사야 26 장-30 장 □ (핵심장 26 장) □</p>	<p>*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선지자는 백성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견고히 의지하라는 내용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리워야단을 치시고, 백성을 불의와 죄악으로부터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심판을 내리실 것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에브라임의 교만함을 벌하시고, 그들을 붙잡히게 하실 것이며, 아리엘(예루살렘)을 괴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떠났으며, 술취하여 교만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여 그들과 맹약을 맺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이 헛되다고 경고하시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복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p>
<p>문제</p>	<p>“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 이니 ()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p>	

- 매일 스케줄에 따라 성경을 읽으시면서 box 에 체크를 해 주시고 (시간이 부족하실 때는 핵심장), 본당 안내석과 친교실에 준비된 성경문답지 수거함에 **노란 봉투와 함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